

대다수 광주 제조업체 “투자 축소·보수 운영”

‘생산비 증가’ 이유 1위...마케팅 강화 등 우선 투자 광주상의, 올해 상반기 투자 계획 조사 결과 발표

대다수의 광주 제조업체가 생산비용 증가 등 이유로 올해 상반기 투자 축소 또는 보수적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8일 광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광주 지역 12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제조업 투자계획 조사’를 시행했으며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시점(3월) 기준으로 당사의 투자 활동이 상반기 계획 대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응답 업체들의 95.0%(114개사)가 ‘상반기 계획보다 투자 축소 또는 보수적 입장 지속 중’이라고 답했으며, ‘당초 계획보다 투자 확대 예정’이라는 응답은 5.0%(6개사)를 차지했다.

당초 계획보다 투자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거나 보수적 입장을 지속하는 이유는 ‘(원자재가 등) 생산비용 증가’ 때문이라는 응답이 41.2%(47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이외에도 ‘재고 증가 등 수요부진(34.2%, 39개사)’, ‘고금리 등 자금조달 부담(27.2%, 31개사)’, ‘수출국 경기 불확실성(14.0%, 16개사)’, ‘기업규제 등 정책 불확실성(7.9%, 9개사)’ 등의 영향 때문으로 나타났다. (다중응답) 반대로 투자를 확대하는 이유로는 ‘선제적 투자 전략(66.7%, 4개사)’에 의한 것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이

어서 ‘자금 사정 개선’, ‘(현장업무개선 등)기타’가 각각 16.7%(1개사)를 차지했다. 올해 응답 기업들은 가장 많은 42.5%(51개사)가 ‘시장 확대 및 마케팅 강화’에 가장 우선 투자할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외에도 ‘생산설비 교체 및 확충(33.3%, 40개사)’, ‘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29.2%, 35개사)’, ‘자동화 전산화 등 공정 개선(27.5%, 33개사)’, ‘인력개발 및 인재 확보(7.5%, 9개사)’, ‘부품 및 자원 개발 투자(6.7%, 8개사)’ 등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다중응

답) 한편 전체 투자에서 신기술 개발, 공정 개선 등 혁신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으로는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53.4%)이 ‘전혀 투자하지 못하거나’ ‘10% 미만’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 기업들은 당사 투자계획 수립 및 실행 시 ‘투자비용 대비 수익성(61.7%, 74개사)’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외에도 ‘현금흐름 등 이용 가능 자금 상황(29.2%, 35개사)’, ‘기술개발 및 혁신 필요성(15.8%, 1

9개사)’, ‘경쟁업체 간 시장 상황(7.5%, 9개사)’, ‘기타(3.3%, 4개사)’, ‘정부 정책 및 인센티브(2.5%, 3개사)’ 등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응답) 광주상의 관계자는 “대내외적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데다 고금리 고물가 등 불확실한 경영환경이 이어지면서 지역 기업들은 적극적인 투자 및 경영 혁신 활동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며 “기업들의 수익성 개선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제도 확대 및 규제 완화 등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임재만 기자

광주 대표 브랜드 쌀 독일 수출길

광주통합RPC, 빛찬들 궁담쌀 18t 물량 선적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는 28일 “지난 28일 광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광주통합RPC)이 광주시 대표 브랜드 쌀 ‘빛찬들’의 독일 수출을 위한 선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이현호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장, 관내 7개 지역농협 조합장, 허정구 NH농협무역 전무이사, 이선화 대표이사, 남택송 광주시 농업동물정책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빛찬들 궁담쌀’ 18t을 독일 (베를린)로 실어보냈다. 또 광주통합RPC의 이번 수출은 지난해 호주·뉴질랜드 수출에 이은 두 번째로 Asia H&S GmbH 유한책임회사

현지 마켓과 긴밀한 협업 끝에 성사돼 독일 베를린 소비자에게 최고의 맛과 건강을 전달할 예정이다. 쌀 재고량 증가로 인한 쌀 가격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시장에 새로운 판로를 확보하고 추가 수출 물량에 대한 계속사업을 추진해 광주시 대표 브랜드 쌀 ‘빛찬들’의 국제적 입지를 다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현호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장은 “지속적인 쌀 소비량 감소, 쌀값 하락에 대응해 판로확보를 위한 해외수출에 애쓰는 광주통합RPC 임직원에게 감사하다”며 “농협광주본부는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으로 광주 쌀의 우수성을 해외에 알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현지 기자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는 지난 28일 광주 대표 브랜드 쌀 ‘빛찬들’의 독일 수출을 위한 선적식을 가졌다.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 제공>

한전, 산재 예방 활동 강화 ‘안전관리 우수협력사 선별’ 실시

한국전력은 협력사의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 시키고 산업재해의 근원적 예방을 위해 매년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를 선별 및 포상하는 ‘안전관리 우수협력사 선별제도’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협력사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지난 15일에는 2023년도 안전관리 우수협력사 평가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7개사(대상전력(주), 가보기전(주), 우림전기(주), GS네오텍(주), 대일코리아(주), 중흥도건(주), ㈜동양) 대표를 나주 한전 본사에 초청해 상장과 상패를 수여했으며, 안전관리 우수협력사로 선정된 30개사에는 안전제도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시상에 이어 협력사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현장 안전관리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하기로 다짐하는 자리를 가졌다. 앞으로도 한전은 협력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조기 확립을 위해 현장 안전관리활동 이행 및 산업재해 예방에 적극 동참하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포상 및 실질적 보상을 더욱 확대하고 전력산업계의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전 관계자는 “안전은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고의 가치이며, 안전이 무너지면 회사도 존속할 수 없다는 인식 아래 앞으로도 우리 모두 하나된 마음으로 현장 안전관리를 힘써 나아가자”고 밝혔다. /임재만 기자

광주디자인진흥원, 지역 중소·디자인기업 지원

아이디어 발굴 연구회 운영...광주 등 12개 협업팀 참여

광주디자인진흥원이 지역 중소기업과 디자인기업의 미래 시장 선도와 시장 창출을 위해 협력의 장을 만든다. 광주디자인진흥원은 20일 “상품 아이디어 발굴, 신규 사업과제 연구기획

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 연구회’를 본격 운영한다. 아이디어 발굴 연구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2024 서남권 디자인사업화 기반구축 사업’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업종간 협업을 통해 미래 기술·시장 동향 등을 분석하고 특화기술을 바탕으로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제품개발 아이디어 등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광주, 제주 등 지역 디자인 전문기업과 제조기업 현장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12개 협업팀, 43명이 연구회 참여 신청을 마쳤다. 이는 지난해 연구회 4개팀, 15명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지역 기업들의 높은 관심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주요 연구과제는 ▲기술과 미래 라이프 스타일 융합 가전 디자인 개발(쥬디 에이치글로벌뷰(디자인바이) 등) ▲미

래형 스마트홈(쥬닛쥬디자인그룹(쥬감성) ▲사용자 경험 중심의 IoT 융복합 제품(쥬제주전자(쥬고은) 등) ▲AI 기반 디자인·인쇄 산업의 상생전략 연구(쥬릴리언즈-디자인연구소 등) 등이다. 연구회는 12개 협업팀 각각 Kick-off 회의에 이어 5월31일까지 중소기업, 디자인기업, 전문가 등이 모여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목표 시장·기술 조사분석, 브레인스토밍, 아이디어 구체화 등을 진행하며 운영된다. 광주디자인진흥원은 연구회 운영을 통해 미래 상품·서비스 아이디어 50건 이상을 발굴한다는 목표다. /김현지 기자

연구회 참여팀에게는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우수 연구팀은 해외 연수도 지원한다. 연구회를 통해 발굴된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콘셉트 디자인 개발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 사업화를 도울 계획이다. 송진희 광주디자인진흥원장은 “아이디어 발굴 연구회는 디자인전문회사의 연구역량 강화, 미래 시장 선도 아이디어를 찾고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이업종간 협업연구회가 미래 먹거리 사업 발굴,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창출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디자인진흥원은 지난해 연구회에서 발굴된 30여건의 아이디어 가운데 콘셉트디자인 개발 10건, 시제품 제작 3건, 우수 연구회 해외 연수 등을 지원했다. /김현지 기자

에너지 절약 및 청정문화 확산 캠페인

지구를 살리는 에너지절약 실천요령

- 3월~ 실내 적정온도 유지하기(여름철 26도, 겨울철 20도)
- 물 사용하지 않는 조명 소등하기
- 세면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 플러그 뽑기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캠페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갖는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은 여전히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에게는 다양한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는 현상이면서 인정을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사·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다양한 식재료를 모두 만날 수 있는

함평전통시장

◎ 장이 서는 날 ◎

- 함평읍 함평전통시장 : 매월 2일, 7일로 끝나는 날
- 나산면 나산전통시장 : 매월 4일, 9일로 끝나는 날
- 해보면 해보전통시장 : 매월 3일, 8일로 끝나는 날
- 월야면 월야전통시장 : 매월 5일, 10일로 끝나는 날

주최 : **광주매일신문·광주매일 TV** 후원 : **함평군** 문의 : 062)650-2099